

## 꼭 막힌 국회

### 뿔 보이콧에 여야 극한 대치...유치원 3법 등 줄줄이 제동 예결소위 구성 하세월...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넘길 가능성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모두 멈춰섰다.

당장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재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인 박홍근 의원은 18일 '7:6:2:1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 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데, 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7:6:1:1' 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예결소위 구성이 미뤄져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내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준수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 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정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우선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대표적 법안이다.

민주당은 자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학부모와 유치원,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12월 초 내놓을 예정인 자체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심해 법안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지는 안인 반면

한국당은 만 12세까지 주자고 주장해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윤창호법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일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특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부에 각각 상정돼 있다.

행안위는 오는 19~20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 이르면 29일 늦어도 12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기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는 지난 14일 제1소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체계 지구 심사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로 심사를 미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부터 시끌 법무부 "백혜련법안이 정부 입장"…한국당 "국회에 떠넘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문제가 논의되기 바란다"며 "정부는 앞서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의원 입법과 정부 입장을 함께 논의해 바람직한 법률안을 마련해주시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의원 입법

으로 대체한 이유를 깨달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의원 발의로 정부안을 통치겠다는 것인가. 그만큼 생색을 냈으면 정부안을 냈어야 한다"며 "검경 눈치는 봐야 하고 수사권 조정은 해야 해서 국회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사법개혁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대해 자꾸 얘기한다면 참대추에 버금가는 참대추로 비관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개혁 안 하기 명분 찾기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엄포했다.

이날 사법개혁 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 제정안,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총 22건의 법안이 일괄 상정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박·영남 다선 물갈이 '0순위'

### 한국당 조강특위, 오늘부터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 심사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진박 공천' 때문에 연루된 인사들과 영남 다선 의원들을 인적청산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를 위해 조강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4~5차례 회의를 열어 인적청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전국 253개 전체 당원협의회에 대한 평가작업을 토대로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인적청산은 오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과도 연결된 물갈이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조강특위는 우선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총선 공천에서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근혜) 공천' 행사에 연루됐거나

이를 통해 공천을 받은 인물들을 수여할 방침이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소위 '진박 후보'를 낙하산 공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당시 김무성 대표가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는 '육새파문'으로 연쇄돼 극한 갈등을 빚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조정, 또는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 역시 이번 심사에서 배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전통 텃밭 영남 지역에 잠시한 신인 정치인을 우선 배치, 세대교체에 나선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대북제재 지속에 ... 민주 남북교류특위 공회전

### 한반도 평화 특위 등 4개...북미관계 교착상태에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평화무드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신설했지만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어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 취임 이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공식 출범한 한반도 평화 관련 특별위원회는 상설 2개(동북아평화협력특위, 한반도경제동일특위)와 비상설 2개(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 한반도비핵화특위) 등이다.

일단, 민주당은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려는

입장이다. 우선 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위원장 안민석)에서는 내년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설립 30주년을 기념한 남북 상호 초청 공연과 유소년 농구단 초청경기 등을 구상하고 있다. 동북아평화협력특위(위원장 송영길)에서는 다음 달 기업인 100여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을 전경경제인연합회 등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들 특위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가능하게 어려운 데다 당분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도 난망하기 때

문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과감한 선(先) 조치를 하지 않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없다면 남북 경제협력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비핵화에 대한 이견으로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살얼음 위를 걷는 듯 예민하게 상황관리를 하고 있어 당이 남북교류의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또 민간 교류 확대도 생길지 모를 불발 변수 등도 부담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북측에서도 정부와 일을 하려는 입장이어서 계기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이개호 농림장관 입법대상

현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이 한국입법학회가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상을 받았다. 이장관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 2018년 4월 제정 공포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은 최우수 법안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연안에만 머물러 있던 해양 공간 관리범위를 EEZ 등 우리 해양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우리나라 해양정책의 패러다임이 '연안'에서 '광역해양공간'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 서삼석 "쌀값 인상 최선 다하겠다"

### 점거 농성 농민들과 면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을 요구하며 당사를 점거 농성 중인 농민들(광주 일부 11월15일자 2번)을 지난 17일 면담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김재욱 의장을 비롯한 전남지역 시군농민회 회장단 16명과 1시간 여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농민들은 "민주당은 5년 전 쌀 목표가

격을 21만7719원으로 책정하고도 울목표가격을 2만원 적은 19만600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농민을 외면했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삼석 위원장은 "농촌이 살아야 전남이 산다는 사명감을 갖고 농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농성 중인 농민들을 위로하고 농성 해제를 설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 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6
	한국어교육학과	1
사범	유아교육과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7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박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 원서접수 : 2018. 11. 20(화) ~ 11. 28(수)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18. 12. 3(월) ~ 12. 12(수)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